

# 인간발달 수업 후 영유아기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변화<sup>†</sup>

## Changes in Perception of Infancy and Early Childhood among University Students after Attending the Lecture on Human Development

문혜련\*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Moon, Hae Lyun\*

Dep.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onggi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erceptive change in attitude toward infancy and early childhood among university students' who were exposed to a human development lecture o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significance of education in shaping attitudes related to child development and the importance of infancy and early childhood as developmental stages. This study also seeks to provide basic data for expanding and systematizing relevant educational programs. Fifteen university students who attended a lecture on human development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with three groups containing 4 members and one group containing 3 member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Before attending the lecture on human development, students perceived infancy as a period dominated by feelings of helpless, indifference, and a general lack of knowledge or ability to interact with their environment; 2) Before attending the lecture on human development, students perceived early childhood as an initial period of transition that can potentially influence one's future; 3) After attending the lecture, students were better able to rationalize the developmental importance of infancy and early childhood. 4) After attending the lecture, students displayed broader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early childhood on human development. This study also discusses the necessity for continuous and systematic provision of programs to help adults develop a positive perception of infancy and early childhood as a developmental process related to parenting skills.

**Keywords:** infancy, early childhood, childhood development, changes in perception of university student, a lecture on human development

### I. 서 론

초기 경험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부모-자녀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며(Jung, 2004), 초기의 부모-자녀 경험이 평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한다. 한 개인의 발달이 과거의 생활경험, 가치관 등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

서 인간의 발달 과정은 영속성이 있고(Jo *et al.*, 2010), 초기 경험이 중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여겨진다. 실제로 영유아기에 형성했던 부모-자녀 관계는 일생 동안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며(Santrock, 2007),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self-esteem)에 영향을 미친다(Kernis, Brown, & Brody, 2000). 그러므로 영유아기에

<sup>†</sup> 본 연구는 2011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신진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Moon, Hae Lyun

Tel: 031-249-9297

Email: helena0915@naver.com

필요한 적절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우선 영유아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많은 연구들을 통해 학자들은 인생의 다양한 시기 중 영유아기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Brazelton과 Greenspan(2000)에 의하면 “영아기는 모든 발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자 가장 상처받기 쉬운 시기이다” (as cited in Wittmer & Peterson, 2006, p. 31). 또한 영유아기는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인지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며, 특히 유아기는 사고력, 판단력과 같은 고등기능 발달과 관계된 전두엽 부위와 정서발달을 지배하는 뇌의 우반구의 발달이 두드러지는 시기이다(Kim, 2006). 이외에도 두뇌발달과 관련한 연구들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 아직 불완전한 뇌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뇌 구조망이 재구성된다. 외상이나 학대, 애착의 부족, 모성우울증 등 조기에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면 유아들의 인지능력은 손상을 받게 되고 이후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공격이나 폭력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심리적으로 상처를 심하게 입은 경우 코티졸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는데, 생후 3세까지 코티졸 분비량이 증가하면 두뇌의 신경회로는 사소한 자극에도 극도로 긴장하고 경계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며, 이에 따라 불안, 충동적 행동 등을 야기하게 된다(Kim, 2002). 따라서 영유아기에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인지 발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건강한 성인으로 발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특히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자녀의 부모가 영유아기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고 적절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어머니가 자녀의 발달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할수록 유아의 발달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적 자극을 보다 효과적으로 줄 수 있음이 논의되었다(Moon, 1998).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대학생들은 인생의 주기 중 성인 전기에 속하며 부모의 보호로부터 벗어나 자립하게 된다. 성인전기는 20~40세 연령에 해당하며 이 시기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Jo et al., 2010). 가깝게는 5년 안에 멀게는 10~15년 후쯤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게 될 것인데,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Luckey와 Bain(1970)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부부나 그렇지 않은 부부 모두 결혼생활의 만족

을 이끄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녀를 꼽았다. 그만큼 부모에게 자녀는 절대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자녀를 좋아한다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11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작성한 ‘2010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신고 된 아동학대 건수는 무려 5,657건으로 학대피해아동 10명 중 4명은 거의 매일 학대를 받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중 87.9%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부모에 의한 학대가 83.2%를 차지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자신의 자녀에게 물리적인 가해를 하는 것 뿐 아니라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주지 않는 행위, 다른 자녀와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행위, 비현실적 기대로 자신의 자녀를 괴롭히는 행위 등도 학대 행위에 속한다(Crosson-Tower, 2004). 이러한 학대는 자녀가 정상적으로 자라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부모가 되는 과정을 순조롭게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부모가 되고자 하는 강한 요구와 부부 간의 역할에 대한 재규정, 즉 아버지의 적극적인 자녀 양육 및 가사협조가 요구된다(Jo et al., 2010). 더불어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과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런 이유로 부모가 되기 전 강좌를 듣고 시험에 합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Laws, 1971).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래의 부모가 될 대학생들이 올바른 부모관과 양육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며, 평생에 걸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유아기의 발달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을 키우고 자라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10년 경 미국의 영향으로 부모교육이 도입되었으나,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와 30년대에는 부모교육의 맥을 잇지 못했다. 1950년대에 다시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으나 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작은 움직임에 머물렀다가(Lee, 1990), 1980년대 초부터 본격적인 부모교육 움직임이 시작되었다(Sin, 1996).

현재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부모교육은 가치관, 가족구조,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과 함께 예비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1995년 이후 대학생이나 일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대상과 연령의 폭이 넓어졌다(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003(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따

라 예비부모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에 실시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발달이나 가족관계에 대한 내용을 통해 접근하는 정도였다(Na, 1992). 1995년 이후 중·고등학생과 같은 청소년, 대학생이나 직장인 들 중 미혼남녀,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 등 그 대상이 다양해졌다(Huh, 2003). 이 중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부모교육에 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아동이해 및 양육방법, 부모역할 수행방법 등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Jung et al., 1995)과 부모역할 및 책임에 대한 이해, 아동 이해 및 양육 방법 등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1998).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 본 후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의 자아인식, 성교육, 임신과 출산, 가족관계, 영유아발달 등의 주제로 적용시켜 본 결과,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며(Sin, 1996), 아동관, 발달이론, 부모역할, 의사소통 등의 주제로 프로그램을 적용해 본 결과 역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Jeon, 2001). 대학의 교양강좌를 통해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 본 후 자녀양육태도나 아동 교육관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가 있는데, 이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3).

이제까지 이루어졌던 연구들을 통해 예비부모교육의 긍정적 효과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배경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발달’ 수업이라는 대학의 교양강좌를 통해 약 3주간(9시간) 영유아기의 발달과 중요성에 대해 들었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식을 구체적인 언어를 통해 알아봄으로써 인생 주기 중 특히 영유아기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통한 바람직한 인식변화가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대학생들의 인식에 변화가 있었다면 또는 없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각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삶의 배경과 이야기를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래의 부모가 될 대학생들이 영유아기의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양육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교육 프로그램 확산 및 체계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아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인간발달 수업을 듣기 전 영아기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2. 인간발달 수업을 듣기 전 유아기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3. 인간발달 수업을 들은 후 영아기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은 어떻게 변했는가?
4. 인간발달 수업을 들은 후 유아기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은 어떻게 변했는가?

## II. 연구방법

### 1. 포커스 그룹 인터뷰

포커스 그룹(Focus Group)은 그룹 면담을 통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들로부터 배우는 방법이다. 포커스 그룹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필요성을 주장하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조사 질문지와 유사하게 느껴지지만, 포커스 그룹에서의 질문들은 상당한 융통성이 주어지며, 조사 질문지가 수직인 요약으로 나타나는 반면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집단에서 토론되어진 것들에 대한 의미 만들기과 주관적 경청 과정이 포함된다. 둘째, 포커스 그룹은 구체적 주제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데 집중하게 되는 특별한 집단이다. 따라서 상당한 양의 잘 조직된 자료를 수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셋째, 포커스 그룹은 개별 면담 방법과 달리 그룹 토론을 이용한다. 이런 방법은 각 개인들의 자세한 정보들은 희생될 수 있지만, 각 그룹의 경험 범위와 의견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다(Sin et al., 2004). 이와 같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개별 면담보다 더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견을 형성해 나가고 이를 통해 구체적 주제에 대한 중요한 개념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

포커스 그룹 단계는 계획하기, 연구 참여자 모집하기, 포커스 그룹 진행하기, 분석하기, 보고서 작성하기 단계로 이루어진다(Morgan, 1997). 본 연구도 이러한 연구 절차를 따라 진행하였다.

###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들은 경기도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인간발

달’에 관한 교양수업에 참여했던 대학생 15명으로 총 4개의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정보는 Table 1과 같다.

### 3. 연구절차

#### 1) 연구 설계 및 자료수집

먼저 연구 계획단계로 인터뷰 실시 전 사전준비를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인간발달’이라는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연구자는 ‘인간발달’ 수업을 듣기 전과 후의 영유아기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임을 알리고, 연구에 참여할 학생들을 지원받아 모집하였다. 또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할 때 사용될 질문을 미리 계획하여 준비하였다. 질문의 형태는 Krueger(1998)가 제시한 질문방식과 과정인 도입질문(Opening questions), 소개질문(Introductory questions), 전환질문(Transition questions), 주요질문(Key questions), 마무리 질문(Ending questions)을 참고하고 질문의 범위를 크게 인간발달의 이해 수업

전 영유아기에 대한 인식과 인간발달의 이해 수업 후 영유아기에 대한 인식으로 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자가 개방형 질문방식으로 작성하였다.

두 번째로 연구 참여자 모집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생각의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택하기 위해 목적적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Merriam, 1998). 즉, 영유아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영유아기와 관련된 유사과목을 수강했던 학생들은 제외하였으며, 서로 원활한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같은 과 학생이나 서로 친분이 있는 학생들을 하나의 포커스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모두 1학년 1학기였기 때문에 영유아발달과 관련된 유사과목을 아직 수강하기 전이었다. 참여자는 총 15 명이었으며, 포커스 그룹은 한 그룹 당 3~4명을 기준으로 4개의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로 포커스 그룹 진행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포커스 그룹의 인터뷰 진행은 그룹별로 참여자 스케줄을 조정하여 인터뷰 일정을 정하였으며, 그룹별로 각

〈Table 1〉 Information of University Students

	Focus group	Grade	Major	Sex
University students 1	1 group	Junior	Catering Cooki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2	1 group	Freshman	Correction Management	Female
University students 3	1 group	Sophomore	Documental Information	Female
University students 4	1 group	Sophomore	History	Female
University students 5	2 group	Freshman	Early Childhood Education	Female
University students 6	2 group	Freshman	Early Childhood Education	Female
University students 7	2 group	Freshman	Early Childhood Education	Female
University students 8	2 group	Freshman	Literacy Creation	Male
University students 9	3 group	Freshman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Female
University students 10	3 group	Junior	Intellectual Property	Female
University students 11	3 group	Junior	Intellectual Property	Female
University students 12	3 group	Junior	Applied Information Statistics	Male
University students 13	4 group	Freshman	Early Childhood Education	Female
University students 14	4 group	Freshman	Early Childhood Education	Female
University students 15	4 group	Freshman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Male

기 조용하고 서로 마주보며 앉을 수 있는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인터뷰 당일 연구 참여자들의 자리세팅을 하였으며 참가자들 전원을 비출 수 있는 위치에 비디오를 설치하였고 토론진행 전 과정은 사전에 양해를 구한 뒤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연구자는 토론의 사회자로서 진행을 하였고 인터뷰에서 지켜야 할 사항과 인터뷰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한 뒤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개인적 의견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질문(도입질문)을 던졌고, 분석엔 포함시키지 않았다. 도입질문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평소 영아나 유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었습니까?”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토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자신의 의견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질문(소개질문)으로 시작하였다. 구체적인 소개질문은 다음과 같다. “영아 또는 유아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나 생각들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이어서 연구를 주도하는 중요한 질문(전환질문)으로 토론을 이끌어 나갔다. 구체적인 전환질문은 다음과 같다. “인간발달 수업을 통해 영유아기 발달에 대한 내용들을 접하기 이전 영아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전환질문에 이어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을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하며 질문(주요질문)을 이어 나갔다. 주요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인간발달의 이해 수업을 듣기 전 영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라면,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인간발달의 이해 수업을 들은 후 영아기에 대한 인식이 변했습니까?”, “변했다면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변했습니까?”, “인간발달의 이해 수업을 듣기 전 유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라면,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인간발달의 이해 수업을 들은 후 유아기에 대한 인식이 변했습니까?”, “변했다면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변했습니까?”, “예비부모로서 영유아기의 발달과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이 마무리되었을 때 토론에서 도출된 의견을 정리하고 연구 참여자들에게 빠진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질문(마무리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였다. 마무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인간발달의 이해 수업을 통해 영아기와 유아기에 대한 인식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빠뜨린 사항이나 추가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준비된 질문 내용 외에도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필요하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 질문을 실시하였다. 한 질문에 대한 토론이 끝나면 연구자는 토론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확한 이해를 했는지,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확인을 했다. 대학생 그룹 1은 2011년 6월 24일, 대학생 그룹 2는 2011년 6월 27일, 대학생 그룹 3은 2011년 6월 30일, 대학생 그룹 4는 2011년 7월 9일에 인터뷰가 실시되었으며, 한 그룹 당 1회의 인터뷰가 실시되었고, 평균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 2) 자료 분석

먼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과정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들을 전사하고, 자료를 정독하여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했으며, 확인된 정보는 주제별로 분류하기 쉽게 각각 다른 색깔 펜으로 표시를 해 두었다. 그 다음에 주제별로 분류기준을 설정하고, 자료를 정확하게 분류를 했는지 검토를 하였으며, 관련 없는 정보들을 찾아서 신중하게 재검토하면서 따로 표시를 해 두었다. 마지막으로, 설정한 주제들 간의 연관성을 탐색하여 범주와 하위범주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대화 내용을 하위범주 별로 일일이 분류하여 기록하였다. 분석이 끝난 후에는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포커스 그룹 참여자들로부터 논의되었던 내용의 사실성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 Ⅲ. ‘인간발달’ 수업 후 영유아기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변화

포커스 그룹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여 영아기와 유아기에 대한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인간발달’ 수업을 듣기 전과 들은 후로 나누어 알아보았고, 각 4가지 주제에 맞추어 자료를 분석한 결과 4개의 범주와 8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 1. ‘인간발달’ 수업을 듣기 전 영아기에 대한 인식

포커스 그룹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영아들에 대해 예쁘

고 사랑스런 존재라는 입장과 귀찮고 피곤한 존재라는 입장으로 나뉘어져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인간발달’ 수업을 듣기 전에 영아기에 대해선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별로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였다.

### 1) 무기력한 시기

“저는 영아기에 애들이 아예 생각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되게 부모들이 하는 훈육방식 그런 거, 때리고 가르치고 이래도 감정이 그냥 없는.... 그런 거.... 그니까 감정이 생길 나이가 되어야, 유치원 때? 그때부터 조금씩 알거라고 생각하고 영아기 때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2011. 6. 24. 대학생 1).

“저는요. 그냥 영아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고 애기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솔직히 그냥 이런 교육을 받기 전에는 영아를 그냥 밥 주고 뭐 하고 그냥 슬쩍 보살펴만 주면 애기가 저절로 자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2011. 6. 27. 대학생 11).

영아기의 아이들은 말도 잘 못하고 걷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보살펴주어야 하는 존재정도만 인식하고 있었으며, 생각이나 감정을 느끼는 존재로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

### 2) 관심 없었던 시기

“저는 그 당시 제가 기억이 없으니깐 그때 내가 무얼 했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나도 별 감정이 없었구나 하고 생각했고, 그냥 이 수업 듣기 전까지는 밥을 잘 먹이면 되고....”(2011. 6. 30. 대학생 2).

“배우기 전에는 애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몰라서 그냥 울면 달래주고 이런 것 정도만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안했어요.”(2011. 6. 24. 대학생 3).

“그러니까 생각도 안 나는 일이고, 그리고 뭐 그렇게 중요한 시기였나? 어차피 나중에 컸을 때 생각

못하잖아... 이런 생각 때문에 영아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2011. 7. 9. 대학생 15).

영아기라는 시기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였으며, 그 시기에 필요한 정서적 관계 형성 즉 애착의 중요성도 전혀 알지 못하고 기억에 없기 때문에 관심조차 없던 경우가 많았다.

## 2. ‘인간발달’ 수업을 듣기 전 유아기에 대한 인식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했던 모든 대학생들은 영아기보다는 유아기가 더 중요한 시기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고, 그 이유는 처음 사회생활을 하는 시기라는 점과 자신의 기억에 비추어 설명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 1) 인생의 첫 전환기

“4살, 5살쯤 성격도 형성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중요한 거 같고, 그래서 그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친구도 그때부터 만나고...”(2011. 6. 30. 대학생 10).

“음...유아기가 영아기에 비해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아기에는 사회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발달이 엄마밖에 접촉을 하지 않잖아요. 주로 가족이나 엄마 뭐 할머니 이쪽 부류고, 유아기에는 유치원 가면서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접하고 자신이 뭔가 사회생활을 배워가고, 사회성을 길러 나가는 부분에서 볼 때 중요한 것 같아요.”(2011. 7. 9. 대학생 15).

많은 아이들이 유아기에 접어들면서 유치원과 같은 집단생활을 하게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경험과 사회생활이 시작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므로 영아기에 비해 중요하며 인생의 다양한 시기 중에서도 비교적 중요한 시기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 2) 이후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

“음... 원래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유아기 때 이랬으니깐 지금 성격이 이렇게 된 것 같고, 이런 게 조금 많은 거 같아서...”(2011. 6. 30. 대학생 9).

“그 때는 또래가 형성되는 시기이니까 그때 친구 한 명 잘못 사귀면 초등학교로 이어지고 그게 또 중학교로 이어지고 첫 시작이기 때문에 유치원 때도 소위 말해서 제 생각에도 그때도 일진이 있었어요.....그때부터 괴롭힘 당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2011. 6. 24. 대학생 10).

“제가 어려서부터 호텔에 살았었는데, 아버지가 호텔에서 주방장 겸 바텐더여서 그래서 .....외국인들 하고 많이 접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영어 발음이랑... 항상 깔러리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미술 작품 항상 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 작품이나 예술 작품? 클래식 이런 걸 다 좋아하고 그런 것 공부하기보다는 지식적 측면에서 대개 많이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요. 그런 성향을 갖게 했다고 생각하거든요.”(2011. 7. 9. 대학생 13).

유아기의 경험이 이후 삶의 경험과 성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의 긍정적 경험과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한 학생도 한 명 있었는데 이 또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설명하였다.

“음~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 그 때 친구가 한 명 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치원을 안 나왔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동네가 아파트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친구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도 전혀 아니고 오히려 더 잘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영향력은 1% 미만이라고 생각해요.”(2011. 6. 27. 대학생 8).

### 3. ‘인간발달’ 수업을 들은 후 영아기에 대한 인식

‘인간발달’ 수업을 들은 후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영아기에 대해 매우 높은 비율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 매우 중요한 시기

“중요성이 훨씬 높아졌어요. 배우기 전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중요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잘 안했었거든요..... 애착 같은 거요. 부모와의 그런 애착이 아기한테도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정서적으로도 좋으니깐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중요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2011. 6. 24. 대학생 2).

“저는 제일 많이 인식이 바뀌었던 건 애착, 그게 저한테 상당히 뇌리에 꽂혔는데요. 비디오에 나왔던 원숭이....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먹이가 있는 곳으로 안가고 그 천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아 정말 그 애착이라는게 아이한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엄마랑 떨어져 있으면서 한 달을 지냈는데 막 무기력해지고 애가 더 울고.... 저 때 엄마가 많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제일 중요한 건 애착이 형성되었던 그게 아기한테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게 확 꽂히고 나중에 엄마가 돼서는 꼭 아기와 같이 많은 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2011. 7. 9. 대학생 9).

“저는 완전히 수업 들으며 깜짝 놀랐고 에버랜드에서 일하다 보면 가족끼리 오는데 수업도 듣고 비디오도 봤으니깐 영아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고 보면 부모님들의 안는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저렇게 안으면 불안정하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고...”(2011. 6. 24. 대학생 12).

영아기의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영아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 2) 능동적이고 발달하는 시기

“막 아이들이라고 하면 그냥 계속 누워있고 계속 보살펴줘야 하고 그런 존재로 알았는데 영상이나 수업을 통해서요. 아이들이 반사 능력이나 그런 걸 통해서요. 두뇌활동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능력이 굉장히 많다는 걸 다시 한 번 알 수 있어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2011. 6. 27. 대학생 6).

“근데 자는 것 속에서도 막 엄청나게... 발달? 발달이 되고 엄청 사소한 주먹 펴기(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시늉을 한다) 이런 걸로도 엄청나게 발달하는

걸 보고 굉장히 중요성을 느꼈어요.”(2011. 7. 9. 대학생 14).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인식에서 자는 동안에도 깨어있는 동안에도 끊임없는 두뇌활동과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능동적으로 세상을 배워가는 존재라는 인식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영아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저는 영아기에 대해선 아직도 와 닿진 않아요..... 저는 좋은 애착 같은 거 형성했다고 해도 그게 계속 지속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아이가 좀 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안 해요.”(2011. 6. 30. 대학생 8).

#### 4. ‘인간발달’ 수업을 들은 후 유아기에 대한 인식

‘인간발달’ 수업을 듣기 전에도 대부분 유아기는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업을 들은 후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이 더 확고해짐을 알 수 있었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상황을 분석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 1) 역시 중요한 시기

“수업듣기 전에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중요한지 하나도 몰랐었는데 어떻게 애에게 해줘야 되고 뭐가 중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2011. 6. 27. 대학생 5).

“원래 생각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보고나서 특성이나 아이들의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자세히 알게 됐지만 중요성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인생에서 이 유아기가 차지하는 퍼센티지는 어차피 맨 처음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별로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2011. 6. 27. 대학생 7).

유아기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역시 영향을 미치는 시기

“이게 나중에 수업을 듣고 그 아이들을 사귀어 보니까 마음으로 조금 이해가 되더라구요. 제 성격도 조금 많이 누그러지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약간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개방적인 친구들이란 많이 얘기를 안 하는 편이라서....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좀 보니까 이해하고, 말하는 것도 거칠었던 말이 전보다는 완화가 되는 것 같고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 아이들한테 말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2011. 6. 27. 대학생 9).

“그 동영상 같은 걸 보기 전엔 잘 몰랐는데, 지금 제 동생을 보니까 그 성격을 저희가 만드는 것 같거든요. 나이차 많이 나는 오빠들... 제가 쌍둥이라서... 그게 둘 다 아이한테....그러니까 애가 오빠들, 나이차 많이 나는 오빠들 사이에 끼 있으니깐 좀 대개 소심해지고, 내성적인 아이가 된 것 같아요. 그 리구 거기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애가 좀 더 활발하고 그렇게 적극적인 애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저희가 좀 더 신경 썼으면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 같아요.”(2011. 6. 30. 대학생 15).

‘인간발달’ 수업을 듣기 전과 마찬가지로 이후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라고 인식하였으며, 특히 자신의 과거와 현재 태도 및 말투 등을 반성하거나 되돌아보며 주변에 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겠다고 인식하였다.

이와 같이 ‘인간발달’ 수업을 듣기 전과 후에 영아기와 유아기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특히 영아기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유아기에 대한 인식은 더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수업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고 ‘과연 내가 잘 할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도 있었다.

“처음에는 이런 거 배워서 좋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저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저걸 그대로 해야지만이 애가 그렇게 올바르게 자랄 수 있을 것 같고, 아 그렇게 정말 내가 할 수 있으려나?

저런 상황이 오면 내가 그렇게.... 환경이 받쳐줄까? 그래서 좀 그런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은 환경을 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어요.”(2011. 7. 9. 대학생 2).

“저는 고민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상황이 이론은 꼭 이겨야 되잖아요. 내 아이는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믿고 따랐다가....그게 100% 정답이라는게 아니니까.....”(2011. 7. 9. 대학생 4).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Lee, 2008). 다음으로 영아기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이다. 인간의 발달단계 중 생애 초기 3년은 인생에 있어 가장 많은 변화를 초래하는 시기이며,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지에 대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Wittmer & Peterson, 2006).

이와 같이 영아기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급격한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며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진 않지만 지금의 나의 모습의 기초를 만들어 준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Shonkoff 와 Phillips(2000)는 영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as cited in Wittmer & Peterson, 2006, p. 33).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발달’ 수업을 통해 영유아기의 중요성에 대해 들었던 대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미래의 부모가 될 대학생들이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알고 올바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교육 프로그램 확산 및 체계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발달’ 수업을 듣기 전 영아기에 대해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기력한 시기이며, 관심 없는 시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기에 해당하는 출생에서 36개월 까지 자신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 전혀 기억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인했다.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영아기가 이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시기라는 인식이 많았다.

현대 유아교육의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주요 변화들 중 한 가지는 영아기와 걸음마 시기 유아와 같이 보다 어린 아동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유아교육이란 학문에서 만 3세 유아 이후의 발달과 교육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앞으로는 좀 더 포괄적인 연령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Decker & Decker, 2005). 이러한 요구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먼저 해마다 증가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로 인해 보육 수요의 증가와 함께 보육 서비스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히 3세 이전 영아에 대한 보육도 증가할

우리의 결론은 명백하다. 생애 초기 발달이 성인기의 안녕을 위한 지울 수 없는 설계도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이후에 이루어지는 발달이 강건할 것인가, 빈약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에 생애 초기를 어떻게 보내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미래의 부모가 될 대학생들이 영아기의 중요성과 영아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식과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체계적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면 대학생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적어도 영아기가 의미 없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은 인식하며 양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인간발달’ 수업을 듣기 전 유아기에 대해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인생의 첫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기이며, 이후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에 접어들면서 처음으로 유치원과 같은 집단생활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인식과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경험에 비추어 인식한 결과라 사료된다.

유아기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인식하듯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유사기관에서 집단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시기이다. 예비부모인 대학생들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많은 부모들은 유치원을 최초의 사회생활경험 장소로 인식하고 다양하고 많은 수의 또래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서 부딪히게 될 갈등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및 태도 등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Moon, 2009).

실제로 유아기가 되면 이전 시기에 비해 또래 간 상호 작용은 증가하게 되며, 우정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또래관계 속에서 거부되거나 무시되는 유아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친밀한 우정관계를 맺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Sin, 2007; Parker & Asher, 1993). 또한 Rubin(1980/1991)은 유아들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배우게 되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유아들은 서로의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가를 배울 뿐 아니라 “너는 우리와 놀 수 없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거절 하는가 또는 “○○는 바보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고정관념화 하는가 또는 역행적이거나 반사회적 행동에 어떻게 참여 하는가 등을 배우기도 한다. (p. 19)

그러므로 유아기의 적응 및 이후 삶의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아기의 중요성에 대해 미래의 부모가 될 대학생들이 경험적 믿음뿐 아니라 신체, 사회, 정서, 인지 발달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중요한지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후 대학생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보다 현명한 부모로서 유아기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인간발달’ 수업을 들은 이후 영아기에 대해 매우 높은 비율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인간발달’ 수업을 듣기 전에는 영아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중요하지 않은 시기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수업을 통해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사료되며 예비부모교육의 효과 및 긍정적 측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미래의 부모가 될 대학생들이 인생 주기 중 영아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도와주되, 관련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이 부모가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될 때 전환된 긍정적 인식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발달’ 수업을 들은 이후 유아기에 대해 수업 전에 갖고 있었던 중요하다는 인식이 더욱 확고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자녀의 특별한 시기에 대해 이해하고 중요성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다. 즉,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Park(2005)의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부모로서의 역할 인식과 역할 수행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할 인식에 대한 중요성보다 역할 수행정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녀발달과 교육에 나름대로 뜻을 두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갈등을 겪거나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기의 중요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모가 된 후 자녀들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양육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인식 뿐 아니라 구체적인 언어와 태도, 행동을 다양한 상황적 맥락에서 배워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실제적 양육기술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요구된다.

이상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대학교의 교육과정 안에 영유아기 발달과 관련된 예비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선택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적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영유아기 발달과 관련된 예비부모교육 과목의 내용적 측면에서 언어표현과 행동지도방법 등 구체적인 접근법을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인식의 전환 특히 실천적 접근이 뒤따르려면 한 번의 수강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대학교 입학 후부터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16주 동안 이루어졌던 ‘인간발달’ 수업이 종강한 직후 실시된 연구이다. 종강 직후이기 때문에 수업시간을 통해 배우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머리와 가슴에 많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영유아기와 관련된 지속적인 수업이나 경험을 할 기회가 없다면 갖고 있던 인식도 퇴색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발달’과 같이 영유아기의 발달과 관련된 수업을 들은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둘째, 수업을 들었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포커스 그룹과 동시에 진행하였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인 인식을 알아보는 양적 연구와 세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질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주제어 : 영아기, 유아기, 아동발달, 대학생들의 인식 변화, '인간발달' 수업

## REFERENCES

- Na, E. K. (1992). A study on the high school students' view about the parenthood and their attitude about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Brazelton, T. B., & Greenspan, S. I. (2001). *The irreducible needs of children: What every child must have to grow, learn, and flourish*. New York: Perseus.
- Crosson-Tower, C. (2004). *Understanding child abuse and neglect* (6th ed.). Boston: Pearson/Allyn and Bacon.
- Decker & Decker. (2005). *Planning and administering early childhood programs*(8th ed.). NJ: Pearson Merrill-Prentice Hall.
- Huh, H. S. (2003). *A study on perception of students for preliminary parenting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Woosuk University, Korea.
- Jeon, S. Y. (2001). Program development for pre parent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6(3), 73-95.
- Jo, B. H., Do, H. S., & Yoo, G. H. (2010). **Human Development**. 교문사.
- Jung, M. L., Lee, H. S., & Bae, S. Y. (1995). A study on perceptions and educational needs for pre-parenthood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5(1), 179-198.
- Jung, O. B. (2004). **영유아발달의 이해**. 학지사.
- Kernis, M. H., Brown, A. C., & Brody, G. H. (2000). Fragile self-esteem in children and its associations with perceived patterns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68, 225-252.
- Kim, J. W. (1998). *A study on the process of program development for the parent edu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Kim, Y. M. (2003). **두뇌를 알고 가르치자**. 학지사.
- Kim, Y. M. (2006). Research in brain development and its implication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6(4), 31-50.
- Krueger, R. A. (1998). *Developing questions for focus groups(Focus Group kit 3)*. CA: Sage.
- Laws, J. L. (1971). A feminist review of marital adjustment literature: The rape of the Lock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3), 483-516.
- Lee, B. L. (2003).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pre-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undergraduate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3(1), 133-152.
- Lee, K. S. (2008). **유아교육과정**. 서울: 교문사.
- Lee, W. Y. (1990). **부모교육론**. 서울: 교문사.
- Luckey, E. G., & Bain, J. K. (1970). Children: A factor in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1), 43-44.
- Merriam, S. B. (1988).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M. H. Huh, Trans (1998). **교육학에서의 질적 사례 연구법**. 서울: 양서원.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2010년 전국아동 학대현황보고서. <http://www.mw.go.kr/>
- Moon, H. L. (2009). Mother's perception about early childhood social education: Using focus group interview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8(5), 1009-1020.
- Moon, J. S. (1998).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ccuracy of the mother's cognition and children development: Focused on the cognitive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Morgan, D. L. (1998). *The focus group guidebook(Focus group kit 1)*. CA: Sage.
- Park, H. K. (2005).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e parental role as parents of children attending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s*. Unpublished master thesis. Pai Chai University, Korea.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 Rubin, Z. (1980). Children's friendship, Y. H. Lee & S. O. Park, Trans (1991). **아동의 친구관계**. 서울: 양서원.
- Santrock, J. W. (2007). *A topical approach to life-span development*(3rd ed.). NY: Mcgraw-Hill Companies, Inc.
- Shonkoff, J. P., & Phillips, D. A. (Eds.). (2000). *From neurons to neighborhoods: The science of early development*.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Sin, H. Y. (1996). *Program development for preparent edu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Korea.
- Sin, K. L., Jo, M. O., & Yang, J. H.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Sin, Y. L. (2007). Social withdrawal and friendships in childhood. *The Journal of Child Studies*, 28(5), 193-207.
-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003). **유아교육백서 1995년-2000년**. 서울: 양서원.
- Wittmer, D. S., & Peterson, S. H. (2006). Infant and Toddler Development and Responsive Program Planning: A Relationship-Based Approach, S. Y. Lee., E. Y. Kim., J. H. Kang., H. L. Moon., & S. H. Lee, Trans (2011). **영아 발달과 반응적 교육**. 서울: 학지사.

접 수 일 : 2011. 12. 02.  
수정완료일 : 2012. 01. 16.  
게재확정일 : 2012. 01. 16.